

2005년도 구비문학 분야 연구 동향

심우장(건국대 인문과학연구소)

1. 개관
2. 주요 연구 흐름
 - 2.1. 공동체론
 - 2.2. 지역 구비문학과 비교 연구
 - 2.3. 사적 전개에 대한 관심
 - 2.4. 현대 구비문학
 - 2.5. 텍스트성에 대한 반성적 논의
 - 2.6. 삶과 문화론
 - 2.7. 문학 치료와 놀이성 연구
 - 2.8. 기타
3. 마무리

1. 개관

2005년도 구비문학 분야에서는 조사된 것만도 단행본 60여 권, 연구 논문 350여 편의 연구 성과가 나왔다. 학위논문은 석사논문이 70여 편, 박사논문이 10편 정도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구비문학회에서 다년 주제로 잡은 ‘구비문학과 공동체 문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져서 주요한 연구 흐름을 형성하였다. 비교 연구와 지역 구비문학 연구 역시 꾸준한 흐름을 보여주었고, 통시적인 관점에서 사적 고찰에 주목한 연구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여성 문학적 관점과 현대 구비문학에 대한 접근도 활기를 띠며 계속되었다. 몇 년 전부터 주목을 받아온 텍스트성에 대한 반성적 논의도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눈에 띄는 새로운 연구 경향도 몇 가지 나타났다. 구비문학을 현실적인 삶의 맥락에서 재해석하려는 흐름이 몇몇 연구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시도되어 주목을 끌었다. 또한 문학치료학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섬으로써 다양한 구비문학 자료에 대한 치료학적 관점의 해석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작품의 유희성이나 오락성에 대해 주목한 연구들이나, 모티프 연구를 새롭게 시도한 예들은 큰 흐름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주목할 만한 경향들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나 연변 쪽의 구비문학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경우나, 생애담과 같은 영역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그리고 자료집의 영어 번역 등도 새롭게 시도된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2. 주요 연구 흐름

2.1. 공동체론

한국구비문학회에서 학술대회의 다년 간 기획주제로 ‘구비문학과 공동체 문화’를 내걸었는데,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성과가 『구비문학연구』 20집과 21집에 실렸다. 이 주제는 구비문학연구가 그 외연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연구의 진척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다시 그 원론으로 돌아가 논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먼저, 전통 구비문학과 공동체 문화를 다루면서는 지역연구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을 취했다. 전통 구비문학이 기반하고 있는 기본적인 공동체는 마을 공동체이다. 마을의 사회·문화적 조건들이 구비문학 자료(마을 신화, 민요, 굿, 인형극 등)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추적하여 구비문학과 공동체의 상관관계에 대한 주장을 제시하였다.¹⁾

1) 임재해, 「마을 설화의 전승양상과 공동체문화의 함수」; 권오경, 「경북·충북 道界地域 민요의 특성과 공동체 문화」; 박경신, 「별신굿과 공동체문화 -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지역 연구를 통해서」, 허용호, 「토박이 광대패 인형극의 전승 양상 - 서산시 음암면 탑곡 마을의 서산박침지놀이를 중심으로」(『구비문학연구』 20집, 한국구비문학회, 2005.)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친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구비문학과 공동체 문화를 살피는 주제가 그 다음에 이어졌다. 판소리와 탈춤, 무속, 민요, 야담 및 이야기문화, 잡가 등이 이 시기를 거치면서 어떠한 변화를 하였고, 그것이 당시의 공동체 문화의 변화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졌다.²⁾ 마을 단위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던 전통 구비문학이 이 시기를 거치면서 지역 공동체 혹은 도시 공동체로 확장되어 나가면서 근대 대중예술로 나아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다양한 양상들이 여러 장르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구비문학과 공동체 문화에 대한 논의는 다분히 현대 구비문학을 염두에 둔 측면이 강하다.³⁾ 다시 말하면, 현대 구비문학에 대한 무분별한 논의에 대해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전통 구비문학의 기반에 대한 논의가 다시 초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사회의 공동체와 현대사회의 공동체가 얼마나 같고 다른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 없이, 또 그 이전에 공동체와 관련된 전통 구비문학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없이⁴⁾ 사이버 공동체나 동호인 그룹이니 하는 것들을 전통사회의 공동체와 동일시하여 그 연장선상에서 그것들이 파생시키는 문화 현상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2) 사진실, 「근대극의 성립과 해체 과정에 나타난 공동체 문화의 위상」; 이용범, 「근대화 과정에서의 무속과 공동체문화」; 나승만, 「근대 민요공동체에 대한 사적 고찰」; 정형호, 「양주별산대놀이의 전승집단과 지역공동체 문화와의 관련성」; 김준형, 「19세기 말-20세기 초 야담의 전개 양상」; 황인덕, 「1900년대 전반기 방랑이야기문과 이야기문화」; 박애경, 「19세기 말, 20세기 초 잡가의 소통 환경과 존재양상」; 김종철, 「19-20세기 전반기 공동체의 변화와 판소리」(『구비문학연구』 21집, 한국구비문학회, 2005).

3) 서대석, 「공동체와 구비문학의 상관관계」, 『구비문학연구』 21집, 한국구비문학회, 2005, 4면. “새삼 공동체와 구비문학의 관계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연구에서 공동체와 구비문학의 관계를 소홀하게 다루었기에 보다 본격적으로 연구하자는 의도와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의 성격이 달라지고 공동체의 분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그에 따른 구비문학의 변모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전통사회 구비문학과 현대의 구비문학이 어떻게 다르고 왜 달라지는가를 공동체의 변화를 중심으로 파악하자는 의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더 나가 현대 사회의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면서 그러한 공동체를 온상으로 자라난 현대의 구비문학을 새롭게 조명해보자는 의도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몇 가지의 문제의식 중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전통사회의 공동체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것으로 본다.”

4) 서대석(앞 논문, 6면)은 예를 들어, 구비문학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정서적 특질이나 민족미학의 원리를 밝힌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럽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대행, 『웃음으로 눈물 닦기』, 서울대 출판부, 2005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성과가 얼마나 되느냐를 따진다면 그 답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는, 구비문학과 직결되지 않은 공동체론과,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은 구비문학론으로 전개되었다는 반성이나, 누구나 인지하는 사회의 변모를 개괄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공동체와 구비문학의 관계가 옛날과 지금이 다르다는 지적에 머물러 있다는 반성은 여전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하겠다. 공동체와 관련된 구비문학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라는 지적이 정확한 평가가 아닌가 생각된다.⁵⁾

2.2. 지역 구비문학과 비교 연구

현장 조사를 통한 자료의 수집이 1차적인 과제인 구비문학 연구에서 지역 단위의 연구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유지이자 돌아가야 하는 고향이다. 구비문학연구가 그 영역을 확장해가면서 이러한 측면에 대한 주의력이 약화되어가는 시점에서 구비문학회에서 기획한 양주 지역의 구비문학 조사 및 연구는 충분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⁶⁾ 특히 한 지역을 대상으로 설화, 무가, 민요, 탈춤, 민속 등 구술문화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연구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면서도, 최근의 문화적 변화 양상까지 포괄하여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지역 구비문학연구는 특히 지역 소재 대학의 학위논문에서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설화의 경우도 여러 편의 학위논문이 제출되었는데⁷⁾, 대부분 표제만 지역 구비문학 연구를 표방하였을 뿐 실제로 지역적인 특징을 제대로 잡아내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자료의 범위를 축소하는 구실로만 지역적인 표제가 활용되고 있을 뿐이며, 지역 자

5) 서대석, 앞 논문, 3면.

6) 강진옥 외, 『양주의 구비문학 1(연구편)』, 박이정, 2005; 강진옥 외, 『양주의 구비문학 2(자료편)』, 박이정, 2005.

7) 박성수, 「忠南地方의 風水說話 研究」, 공주대 석사논문, 2005; 이지향, 「全北地域의 孝行說話 研究」, 우석대 석사논문, 2005; 한정훈, 「전남 용설화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2005; 허무영, 「부산 강서구 설화의 구조와 특성」, 동아대 석사논문, 2005; 이진모, 「嶺東 地域 說話 研究」, 관동대 박사논문, 2005.

료를 바탕으로 일반론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모순을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1차적인 자료 정리의 수준에 머물고 문학론의 차원에서 지역적인 특성을 도출해내는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논문이 나경수⁸⁾와 임재해⁹⁾에 의해 제출되었다. 각각 무등산 전설과 공민왕 몽진 설화와 같이 애초에 지역성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하여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 앞의 논문들이 가지는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요의 경우는 좀 다르다. 특히 민요는 비교적 지역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지역 구비문학연구의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는데, 2005년만 하더라도 석사논문이 2편¹⁰⁾, 박사논문이 2편¹¹⁾을 비롯해서 많은 수의 논문이 제출되었다¹²⁾. 논의의 수준도 설화에 비해서 뚜렷하게 높았는데, 유명희와 이현수의 박사논문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같은 시기에 아라리에 대한 박사논문이 동시에 제출되었다는 점에서도 특이할 만하지만 지역 구비문학 연구의 각기 다른 두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인정받아야 할 것 같다. 유명희는 강원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아라리의 양상과 의미를 살폈는데, 아라리가 어떠한 환경에서(그것이 지리적 환경이건 사회적 환경이건), 삶의 어떤 지점에서 왜 불렀는가 하는 문제를 얘기해야 한다고 하면서, 주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아라리가 불렀는지, 또 그것은 강원지역의 지리적 특성 혹은 정서와 어떤 관련을 갖는지를 살피는 논의를 진행시켰다. 반면 이현수는 전통적 전승현장과 확장된 새로운 전승현장에서의 정선아라리를 비교하여 지역공동체 노래

8) 나경수, 「무등산 전설의 연구」, 『한국민속학』 41, 한국민속학회, 2005.

9) 임재해, 「공민왕 몽진 설화에 나타난 주민들의 역사의식」, 『구비문학연구』 21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10) 이영우, 「단양민요의 지역성 연구」, 세명대 석사논문, 2005; 정연정, 「경남 의령군 전승민요 연구」, 부산외대 석사논문, 2005.

11) 유명희, 「아라리연구」, 한림대 박사논문, 2005; 이현수, 「정선아라리의 전승현장과 변이양상 연구」, 대구대 박사논문, 2005.

12) 권오경, 「경북·충북 道界地域 민요의 특성과 공동체 문화」, 『구비문학연구』 20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권오경, 「동해안 지역 어로요의 존재양상과 특성」, 『한국민요학』 17, 한국민요학회, 2005; 이창식, 「인제지역 뱃목민요의 원형과 활용」, 『한국민요학』 17, 한국민요학회, 2005; 최자운, 「경기지역 고사소리 연구」, 『한국민요학』 16, 한국민요학회, 2005 등.

문화의 성격 변화에 대해 살핌으로써 지역 구비문학연구의 한계를 통시적인 관점으로 극복하려 하였다.

비교 연구의 분야에서는 한중일의 동아시아를 단위로 하는 비교 연구가¹³⁾ 뚜렷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다른 장르에 비해서 설화는 인접 지역과의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동아시아 범위에서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설화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가는 느낌이다. 나아가 동아시아의 경계를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의 시야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어서 관심을 끈다.¹⁴⁾ 난생과 같은 보편적인 모티프를 다룰 경우에는 충분히 가져볼만한 관점이라 할 수 있겠다.

초기의 비교 연구가 신화나 서사시 쪽에 치우쳤던 것을 감안한다면, 최근에는 차츰 민담이나 전설 쪽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가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설화 유형군을 중심으로 하는 비교 연구로까지 확장되고 있어¹⁵⁾ 비교 연구가 한층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다만, 아직까지도 비교의 논리나 근거가 희박한 개별 유형이나¹⁶⁾ 개별 지역에¹⁷⁾ 대한 비교 논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나, 설화를 제외한 다른 장르에서의 비교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등은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13) 강진욱, 「동아시아 농경 및 곡물기원 신화와 문화영웅의 존재양상」, 『구비문학연구』 21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이지영, 「동아시아 건국시조신화의 비교연구」, 『동아시아고대학』 12, 동아시아고대학회, 2005; 이창식, 「서불설화의 동아시아적 성격」, 『어문학』 88, 한국어문학학회, 2005; 이창재, 「한중일 영웅신화의 공통성과 차이성에 대한 정신분석적 비교」, 『비교민속학』 30, 비교민속학회, 2005.

14) 이지희, 「아시아 지역 난생신화의 유형과 의미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5.

15) 정재민, 「韓·中 天生緣分說話의 비교 연구」, 구비문학연구 20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16) 이신성, 「韓·中 <孝子里>와 <義虎亭>설화의 比較研究」, 동남어문논집 19, 동남어문학회, 2005; 황인덕, 「'두더지 혼인' 설화의 印·中·韓 비교고찰」, 어문연구 48, 어문연구학회, 2005; 황인덕, 「<범보다 무서운 꽃감> 설화의 비교적 고찰」, 한국민속학 42, 한국민속학회, 2005.

17) 유미경, 「한국과 프랑스의 민담 유형 비교 연구」, 경기대 석사논문, 2005; 장의용, 「한국 전 남지역과 대만의 당신좌정담 비교 연구」, 한남대 석사논문, 2005; 김윤애, 「한국 창조신화와 그리스 창조신화에 있어서 자연」, 『비교민속학』 30, 비교민속학회, 2005.

2.3. 사적 전개에 대한 관심

구비문학은 사적 전개에 대해 설명하기 무척 어려운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느 분야보다 사적 전개에 관심이 많은 분야라고도 할 수 있다. 구전의 문학이면서 적층 문학이라는 점이 구비문학의 이러한 특성을 잘 설명해준다. 최근의 사적 전개에 대한 관심은 크게 두 지점에서 활기를 띠고 있다. 하나는 민담과 전설이 고대의 신화적 사유와 만나는 지점이고, 다른 하나는 전통 구비문학이 현대의 구비문학과 만나는 지점이다. 전자는 민담과 전설에서 신화적 사유의 흔적을 찾아보자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후자는 근대 초창기, 그러니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요한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윤혜신은, 『삼국유사』에 있는 불상 출현담이, 설화가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하고, 사회적으로는 지배이데올로기로서 무불(巫佛)이 교체되는 시기에 고대신화와 설화가 연계되는 문학 현상의 한 흐름을 보여준다고 하여, 고대신화와 『삼국유사』 소재 설화의 접점에 대한 추론을 내놓았다.¹⁸⁾ 박사학위논문을 다듬어 다시 출간한 이동철의 저서에서도¹⁹⁾ 설화의 역사적 전개에 대한 관심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오세정은 <대홍수와 목도령> 설화에 나타난 창조신의 성격에 대해 논하면서²⁰⁾, 목도령의 존재론적 자질과 위상이 <창세가>에 나타난 창조신과는 어느 정도 차별화되면서 뒤를 잇는 건국신화의 건국 주인공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강옥과²¹⁾ 김준형은²²⁾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야담에 대해 관심을 보

였다. 관심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앞 시기 야담들 중에서 어떤 것을 주로 선택하여 변형하였는가와 갈피를 잡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해진 당대 현실을 어떠한 방식으로 담아냈는가이다. 김종철은²³⁾ 판소리가 근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전국적으로 연행 공간을 확대해 나가고, 또 극장 공간을 연행 공간으로 확보하면서 도시의 시민 문화에 편입되는 경로를 추적하였다. 사진실은²⁴⁾ 여기에 덧붙여 탈춤이 판소리와는 다른 경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공동체 문화의 측면에서 추론하기도 하였다. 장유정은²⁵⁾ 민요와 대중가요의 논의를 잇기 위해 20세기 전반기의 가요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며 일련의 연구 성과를 내놓고 있다. 배연형의 박사논문은²⁶⁾ 유성기 음반이 매워주지 못한 19세기 후반, 20세기 전반기의 판소리의 전반적인 모습을 판소리 소리책을 통해 가늠해 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2.4. 현대 구비문학

『현대사회와 구비문학』²⁷⁾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이 출판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 구비문학 또는 현대사회와 구비문학이라는 주제로 묶일 수 있는 연구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소위 문화 콘텐츠라 할 수 있는 것들에²⁸⁾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었는데, 인터넷(디지털) 전송물²⁹⁾, 방송 콘텐츠(드라마, 시트콤 등)³⁰⁾, 영상 콘텐츠(영화, 애니메이션 등)³¹⁾, 축제 및 관광

23) 김종철, 「19-20세기 전반기 공동체의 변화와 판소리」, 구비문학연구 21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24) 사진실, 「근대극의 성립과 해체 과정에 나타난 공동체 문화의 위상」, 『구비문학연구』 21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25) 장유정, 「1930년대 서울 노래의 이중성 : 웃음과 눈물의 이중주」, 『서울학연구』 24,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2005; 장유정, 「20세기 전반기 기생 소재 대중가요의 노래말 분석」, 『한국문화』 35,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05; 장유정, 「20세기 전반기 한국 가요와 문화콘텐츠」, 『한국민요학』 17, 한국민요학회, 2005; 장유정, 「안서 김억의 대중가요 가사에 나타나는 민요적 특성 고찰」, 『겨레어문학』 35, 겨레어문학회, 2005.

26) 배연형, 「판소리 소리책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2005.

27) 구비문학회 편, 『현대사회와 구비문학』, 박이정, 2005.

28) 김의숙 · 이창식 공편,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역락, 2005; 신선희, 『우리 고전 다시 쓰기 - 고전 서사의 현대적 계승과 장르적 변용』, 삼영사, 2005.

29) 장미영, 「판소리 사설의 디지털서사화 방안」, 『판소리연구 20집』, 판소리학회, 2005.

30) 한소진, 『설화의 바다에서 퍼올린 한국드라마』, 한국학술정보, 2005.

18) 윤혜신, 「불상출현담(佛像出現譚)의 서사문학적 위치와 의미 : 『삼국유사』 <황룡사 장륙>, <사불산 굴불산 만불산>, <무왕>조 설화를 대상으로」, 『구비문학연구』 20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19) 이동철, 『한국 용설화의 역사적 전개』, 민속원, 2005.

20) 오세정, 「<대홍수와 목도령>에 나타나는 창조신의 성격」,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21) 이강옥, 「19세기 말 야담의 새로움」, 『국어국문학』 140, 국어국문학회, 2005.

22) 김준형, 「19세기 말-20세기 초 야담의 전개 양상」, 『구비문학연구』 21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김준형, 「근대전환기 패설의 존재양상 - 1910~1920년대 패설집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42, 한국문학회, 2005.

콘텐츠³²⁾, 게임³³⁾, 출판물³⁴⁾, 공연물³⁵⁾ 등이 그것이며, 여기에 도시구비문학³⁶⁾이나 대중가요³⁷⁾에까지 두루 관심을 보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론적이거나 선언적인 성격의 연구가 주류를 이룬 것과 비교해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콘텐츠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달라진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와 구비문학이라는 주제는 살아 있는 문학으로서 구비문학의 현재적 가능성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인정할 만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는 상황 점검의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현재의 제 문화 영역에서 구비문학을 계승 혹은 활용한 많은 문화적·문학적 양식이 존재한다는 정도의 점검, 또는 구비문학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정도의 점검, 조금 더 나아가면 그것의 의의와 한계에 대한 소박한 가치 평가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몇몇 반성적 논의에서 소위 현대 구비문학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

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김진순의 논의³⁸⁾ 그 방식에 있어서 의의를 인정받아야 한다. 민족문화로서 민요가 가지는 특성을 민족정서와 관련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한국민요의 가치를 현대사회에서 민요가 전승되어야 하는 근거로 제시하였다. 노동, 의식, 유희라는 민요의 기능에 대한 기존의 논의로는 현대 사회에서 민요의 전승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민요의 정서적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를 다시 전개하여 이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추출해 보고, 미래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해 본 것이다. 결국 문화콘텐츠라는 관점에서 전통 민요를 재해석하여 새로운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 놓음으로써 전통 민요에 대한 논의와 문화콘텐츠에 대한 논의를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조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2.5. 텍스트성에 대한 반성적 논의

구비문학 작품의 텍스트성에 대한 관심은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표출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이것이 구비문학 연구의 주요한 흐름의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는 경향이다. 텍스트성에 대한 반성적인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연구자는 송효섭이다. 그는 ‘신화’의 탈개념화를 주장하면서³⁹⁾, 기존의 신화 연구가 신화를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착색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신화를 근원적인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곳으로 설정하는 지형적 사유는 그야말로 신화적이라는 의미를 담아, 『탈신화 시대의 신화들』이라는 연구서를 펴내기도 하였다.⁴⁰⁾ 주장의 핵심은 신화를 무엇을 담고 있는 텍스트로 보지 말고, 하나의 과정으로 보자는 것이다. 신화는 특수한 방식의 기호작용일 뿐이며, 그 기호작용은 그것이 일어나는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31) 백성과, 「문화콘텐츠 시나리오 창작 유형에 관한 연구 :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논문, 2005.
- 32) 표인주, 「인물전설의 전승양상과 축제적 활용」, 『한국민속학』 41, 한국민속학회, 2005; 홍순일, 「<도서지역 민요>와 문화관광」, 『한국민요학』 17, 한국민요학회, 2005; 조정현, 「하회탈춤 전통의 재창조와 안동문화의 이미지 변화」, 『비교민속학』 29, 비교민속학회, 2005.
- 33) 강호정, 「설화 문학의 현대적 적응 양상 연구-〈지하국대적퇴치담〉과 온라인 게임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논문, 2005.
- 34) 박정용, 「설화의 전래동화 개작 양상과 문제점 연구-〈해와 달이 된 오누이〉, 〈콩쥐팥쥐〉, 〈아기장수 설화〉를 중심으로」, 한남대 석사논문, 2005; 박은희, 「현대소설에 나타난 처용설화 수용 양상」, 한남대 석사논문, 2005; 심치열, 「삼국유사 소재 설화의 서사적 계승 연구」, 『국어국문학』 139, 국어국문학회, 2005.
- 35) 이윤선, 「땃배노래의 교섭양상과 공연화에 나타난 변화 고찰」, 『한국민요학』 16, 한국민요학회, 2005; 장지희, 「〈심청전〉의 형성과정과 현대적 변용 연구」, 조선대 박사논문, 2005; 김광욱, 「〈수궁가〉의 재창조를 위한 수행적 연구」, 『판소리연구』 20, 판소리학회, 2005; 이진원, 「판소리 〈춘향가〉의 현대적 재창조에 관한 연구」, 『판소리연구』 19, 판소리학회, 2005; 최승연, 「서울예술단의 뮤지컬 〈심청〉 연구」, 『판소리연구』 19집, 판소리학회, 2005; 최영희, 「한국현대 회곡에 나타난 춘향전 변용 양상연구」, 『판소리연구』 20집, 판소리학회, 2005.
- 36) 김종대, 「도시에서 유행한 <빨간 마스크>의 변이와 속성에 대한 시론」, 『한국민속학』 41, 한국민속학회, 2005; 김종대, 「學校共同體에서 만들어진 이야기, 學校怪談」, 『구비문학연구』 20집, 한국구비문학회, 2005.
- 37) 장유정, 「현대 트로트의 특성 고찰 : 2004년 하반기 인기곡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0집, 한국구비문학회, 2005.

38) 김진순, 「한국민요의 정서적 기능과 문화콘텐츠」, 한림대 박사논문, 2005.

39) 송효섭, 「‘신화’의 탈개념화와 담론 생산의 가능성」,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엮음, 『국어국문학, 미래의 길을 묻다 - 향후 10년의 지형도』, 태학사, 2005.

40) 송효섭, 『탈신화 시대의 신화들』, 기파랑, 2005.

또 다른 방식으로 설화의 텍스트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김정섭은⁴¹⁾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어긋남(전승 주제와 이야기 내용간의 여러 가지 엇갈림의 흔적)에 주목하고, 이를 텍스트화라는 개념과 더불어 컨텍스트화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야기의 구연 과정에는 텍스트에 대한 반성과 컨텍스트에 대한 반성이 함께 한다는 것인데, 구술연행에서 일어나는 컨텍스트에 대한 이와 같은 이야기꾼의 끊임없는 반성이 어긋남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류정월의 관심도 비슷한데, 문헌 소화의 이야기부와 논평부가 어긋나는 현상에 주목하여, 그것을 웃음의 성격을 변형시키는 알레고리적인 관계 혹은 대립적 관계로 파악하였다.⁴²⁾

김종근은 <열녀춘향수절가>를 중심으로 판소리의 갖가지 모순되는 또는 과장되는 표현이나 상황이 판소리의 미학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여, 텍스트성에 대한 반성적 논의에 참여하였다.⁴³⁾ 민요의 경우도, 반성적 논의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넓은 의미에서 텍스트성에 대한 논의에 포함시킬 만한 것이 있었다.⁴⁴⁾ 구비문학의 텍스트성에 대한 논의는 구비문학의 구술문화적 속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텍스트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다분히 기록문화적인 것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히 텍스트성에 대한 반성적 논의는 아직 문제제기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비문학의 구술문화적인 특성을 밝히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

41) 김정섭, 「이야기 전승에 나타난 텍스트화의 양상」, 『한국고전연구』 11,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42) 류정월, 「문헌 소화의 의미 작용에 관한 일고찰: 이야기부와 논평부의 상호 작용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0집, 한국구비문학회, 2005.

43) 김종근, 「<열녀춘향수절가>의 구연적 과장 표현 양상과 그 의미」, 『판소리연구』 19집, 판소리학회, 2005. 이외에도 판소리에서의 텍스트성에 대한 논의로는 김현주, 「<춘향가> 문체의 환유적 성격」, 『판소리연구』 19집, 판소리학회, 2005가 있다.

44) 강연임, 「<시집살이요>의 텍스트성 연구」, 어문연구 48, 어문연구학회, 2005; 이성훈, 「<해녀 노 젓는 소리> 사설의 오기 및 어석의 오류」, 한국민요학 16, 한국민요학회, 2005.

2.6. 삶과 문화론

구비문학이 삶과 밀착된 현장의 문학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구비문학 연구가 현실적 삶의 문제를 포괄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관점에서⁴⁵⁾ 진행된 연구 결과물이 눈에 띈다. 『강원도 민요와 삶의 현장』에서는 강원도의 농부와 초부와 뗏사공이 강원도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어떤 민요를 창조해 내었는지 탐색하였다. 또한 삶의 현장에서 민요가 가창되는 양상을 살펴보고, 그 가창자들의 삶에 대한 인식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⁴⁶⁾ 신동훈은⁴⁷⁾ 최근의 인터넷 문화에 주목하여, 네티즌의 정치행위와 문학 행위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관점에서 인터넷 게시판의 문학적 소통 현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실적 삶에 대응하여 문학적 표현과 소통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은 21세기적 참여문학의 면모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문화 혹은 문학을 보는 신동훈의 이 같은 시선은 판소리를 분석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판소리문학의 결말부에 담긴 현실의식 재론」⁴⁸⁾이라는 논문에서 그는, <심청전>과 <홍부전>을 대상으로 설화적 분위기의 환상적 결말 때문에 판소리의 예술적 가치가 감퇴되었다는 기존의 주장에 대해 반대하면서, 이들 작품에서의 환상적 결말이 작품 전반부의 현실적 서사와 긴밀한 상호 조응 관계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문학적 의미를 발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른바 ‘하늘의 이치[천도]’가 작품의 전반부에서는 작품의 이면에 가로놓여 있다가, 후반부에서는 극적으로 전면부에 부각되면서, 고난의 현실을 넘어선 좋은 날의 도래에 대한 사람들의

45) 이에 대해서는 강진욱, 구비문학과 삶, 인간 이해로 나아간 노정,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국어국문학, 미래의 길을 묻다 - 향후 10년의 지형도』, 태학사, 2005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46) 이보형 외, 『강원도 민요와 삶의 현장』, 집문당, 2005. 비슷한 형태의 연구서로는 이성훈, 『해녀의 삶과 그 노래』, 민속원, 2005과 배재홍 외,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탄광촌 사람들의 삶과 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05 등이 있다.

47) 신동훈, 「인터넷, 이야기, 그리고 생활정치 - 네티즌의 정치참여에 대한 문학적 고찰」, 『민족문학사연구』 27, 민족문학사학회, 2005.

48) 신동훈, 「판소리문학의 결말부에 담긴 현실의식 재론: <심청전>과 <홍부전>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19, 판소리학회, 2005.

믿음과 의지를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⁴⁹⁾

당위라 생각될 만한 문학과 삶의 관계가 다시금 초점이 되고 있는 흐름은 문학 패러다임의 변화를 지적하는 일련의 논의와⁵⁰⁾ 켜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분석의 틀이나 해석의 모미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여 왔던 기존 연구에 대한 반성이라는 차원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와 얼마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 묻는다면 답변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다루는 대상이 확장되기는 했지만, 기존 연구에서 의의나 의미라 분석해 놓았던 것을 현실적 삶의 맥락이라는 차원으로 다시 풀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7. 문학 치료와 놀이성 연구

문학 치료에 대한 논의가 구비문학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제출되고 있는 것은 새로운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문학 치료라는 분야가 특히 구비문학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구비문학이 ‘연행’을 본질적인 속성으로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굳이 제의적인 연행이 아니더라도 연행을 통한 내적인 혹은 외적인 교감의 형성이 심적인 변화로서의 치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비서사장르가 보여주는 무질서한 시공간에 대한 경험은 예술적 치유력의 온상이라 할 수 있다.

주목되는 연구로는 이민성의 석사논문을 들 수 있다.⁵¹⁾ 제의적 연행방식을 내재한 예술로서 아방가르드 연행과 판소리를 비교하면서 아방가르드의 실험적 연행이 지닌 한계를 넘어서 있는 판소리의 치유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청각 중심의 예술이 갖고 있는 소통 방식과 구조의 개방성 차원에서의 치유성, 추임새를 통한 교감과 집단창조에서의 치유성, 웃음이 가져다주는

49) 현실적 삶의 맥락에서 작품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이와 같은 해석은 최원오(『무속신화, 그 속에 반영된 가족의 일상적 삶과 의미』, 『국문학연구』 13, 2005)에 의해서도 시도되었다.

50) 대표적으로 신동훈, 『문화전환기에 돌아보는 문학의 개념과 위상 - 사이버세계, ‘일상의 문학’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17, 민족문화사학회, 2000.

51) 이민성, 『판소리의 치유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5.

희극적 정화에서의 치유성에 대해 각각 논의하였다. 이외에는 대부분이 『문학치료연구』라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인데, 논의가 거의 대부분 설화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부 판소리나 서사무가에 대해서도 문학 치료적인 관점이 적용되고 있다.⁵²⁾

작품이 보여주는 오락성 혹은 유희성에 관심을 보인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 특히 탈춤의 유희적 성격에 관심을 보인 석사논문 두 편이 동시에 제출된 점은 오락성 혹은 유희성이 새로운 연구의 주제로 일정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⁵³⁾ 두 편의 논문이 공통으로 기반하고 있는 관점은 탈춤에 대한 놀이문화적인 관점이나 공연문화적인 관점이다. 그러니까 문학의 틀을 넘어선 좀 더 포괄적인 문화론적 차원에서 탈춤에 접근하면서, 그것의 핵심적인 특성으로 오락성 혹은 유희성을 포착해 낸 것이다. 탈춤이 보여주는 가변적이고 즉흥적인 성격, 간텍스트성이 보여주는 ‘알고 즐기기’의 측면, 과장 · 극대화된 표현이나 풍자 · 비판적이면서도 대동놀이적인 성격 등이 오락성 혹은 유희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국면이라고 하였다.

구비시가가 보여주는 유희성에 주목한 연구도 있었다. 이창식은⁵⁴⁾ 성(性)을 소재로 하는 구비시(육요)를 한 데 모아 논의하면서, 육요의 의미가 외설성이나 비생산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박한 자기만족감이나 생산현장의 흥미성에 있다고 하였다. 육요 부르기의 문화적인 의의는 표현의 노골성이 놀이의 재미성을 활용하여 인간성(人間性)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

52) 강미정, 「<도화녀와 비행량>에 대한 초등학교 3학년 도형이의 반응과 그 문학치료적 전망」, 『문학치료연구』 2, 문학치료학회, 2005; 서은아, 「<나무꾼과 선녀>의 부부갈등 중 ‘선녀’의 개인적 결점으로 인한 갈등과 그 문학치료적 가능성 탐색」, 『문학치료연구』 2, 문학치료학회, 2005; 신동훈, 「치유의 서사로서의 무속신화 - 그 문학치료적 힘에 대한 단상」, 『문학치료연구』 2, 문학치료학회, 2005; 하은하, 「『삼국유사』 소개 설화를 이용한 문학치료의 한 사례」, 『문학치료연구』 2, 문학치료학회, 2005; 강미정, 「<갑부가 된 석승>에 나타난 자기서사의 변화」, 『문학치료연구』 3, 문학치료학회, 2005; 정충권, 「<홍부전>과 <마리공주>의 문학치료학적 독해-비교의 관점에서-」, 『문학치료연구』 3, 문학치료학회, 2005; 하은하, 「원수가 자식이 된 이야기의 이분양상과 문학치료적 의미」, 『문학치료연구』 3, 문학치료학회, 2005.

53) 김승현, 「<봉산탈춤>의 오락적 성격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2005와 박하정, 「탈춤에 내재된 유희적 성향 연구 - 송파산대놀이, 봉산탈춤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5.

54) 이창식, 「성(性) 소재 구비시가의 유희성과 생산성」, 『우리말글』 33, 우리말글학회, 2005.

다는 것이다. 구비시가를 놀이문화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논문들과 비슷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문학 치료와 유희성에 대한 논의는 지금의 우리 사회가 문학에 요구하고 있는 실용성이라는 부분과 관련을 맺고 있다. 아직은 그렇게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는 굳이 애써 논의하려 하지 않았던 문학의 효용과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2.8. 기타

구비문학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움직임이 있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모티프에 대한 연구이다.⁵⁵⁾ 모티프는 서사문학 일반에 공통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의 시야를 확장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북한 쪽의 자료나 연구 상황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으며,⁵⁶⁾ 연변 조선족이나 고려인에까지 관심을 확장시키기도 하였으며,⁵⁷⁾ 동북아시아 한민족이라는 틀로 중국과 일본에 살고 있는 한민족까지 포괄하여 논의를 펼친 경우도 있었다.⁵⁸⁾ 일본어로 쓰여진 한국설화나 설화론에 관심을 가진 경우나⁵⁹⁾, 생애담의 문학적 성격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펼친 경우는⁶⁰⁾ 소중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신화의 붐을 타고 신화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교양서들이 전에 없이 많이 출간된 점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⁶¹⁾ 기초학문육성지원사

55) 강경애, 「<梁山伯傳>의 설화적 모티프 연구」, 신라대 석사논문, 2005; 김윤옥, 「고전 서사문학의 '꿈' 모티프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2005; 이지영, 「무속신화에 나타난 救災모티프의 서사화 양상과 그 의미」, 『구비문학연구』 21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56) 김기창 · 이복규, 『분단 이후 북한의 구전설화집』, 민속원, 2005; 한정미, 「북한의 문예정책과 구비문학의 활용 양상 연구」, 숙명여대 박사논문, 2005; 김문태, 「北韓의 口碑文學 장르 인식과 관점 연구」, 『어문연구』 12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57) 장익선, 「延邊民謡의 音樂의 特性과 傳承樣相에 대한 研究」, 한양대 박사논문, 2005; 김보희, 「고려인 전래민요의 전승과 변천」, 『한국민요학』 16, 한국민요학회, 2005.

58) 이현홍, 『동북아시아 한민족서사문학 연구』, 박이정, 2005.

59) 조희웅, 「일본어로 쓰여진 한국설화, 한국설화론 (1)」, 『어문학논총』 24,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2005.

60) 김예선, 「'살아온 이야기'의 문학적 성격과 위상 연구」, 건국대 국문과 석사논문, 2005.

업의 결과로 출간된 <관소리사설전집>(전 15권)도 주요한 업적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관소리 5마당이 영역 자료로 출간된 점은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구비문학 자료를 엄선하여 영역한 *Oral Literature of Korea*⁶²⁾의 출간도 오래된 숙원을 해소해 주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3. 마무리

구비문학 연구의 외연은 자꾸 넓어져 가는데, 문제적인 논문은 오히려 줄어들어 가는 것 같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거리를 찾는 데만 치중하고 있어 연구의 시각이나 관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줄어들고 있다는 비판이다. 상대적으로 많아진 논문들이 서로 대화하거나 논쟁하지 않고 고립되어 간다는 느낌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회에서는 ‘기획주제’라는 이름을 내걸고 쟁점을 뚜렷이 부각시켜서 여러 연구자들이 공통의 주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개별 발표 논문에 비해서 논의의 심도가 높지 않다는 비판이 있으며, 기획주제 무용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에 이제는 좀 더 귀 기울여 봐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치열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는 ‘연구회’ 모임의 활성화에 시선을 돌려봐야 할 때다.

61) 김열규, 『한국인의 신화』, 일조각, 2005; 심치열 · 박정혜, 『신화의 세계』, 성신여대 출판부, 2005; 이석범, 『제주신화』, 황금알, 2005; 최원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한국 신화2』, 여름언덕, 2005 등.

62) Seo Daeseok and Peter H. Lee, *Oral Literature of Korea*, Jimoondang, 2005.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강원의 설화 1-2』, 강원도, 2005.
- 강진옥 외, 『양주의 구비문학 1(연구편)』, 박이정, 2005.
- _____, 『양주의 구비문학 2(자료편)』, 박이정, 2005.
- 구비문학회 편, 『현대사회와 구비문학』, 박이정, 2005.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문헌으로 보는 고려시대 민속』,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 권태효, 『한국 구전신화의 세계』, 지식산업사, 2005.
- 김경수 외, 『처용은 누구인가』, 역락, 2005.
- 김기창 · 이복규, 『분단 이후 북한의 구전설화집』, 민속원, 2005.
- 김대행, 『웃음으로 눈물담기』, 서울대 출판부, 2005.
- 김성식 외, 『남도 민속의 세계』, 민속원, 2005.
- 김승호, 『한국사찰연기설화의 연구』, 동국대 출판부, 2005.
- 김열규, 『한국인의 신화』, 일조각, 2005.
- 김익숙 · 이창식 공편,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역락, 2005.
- 김익두, 『한국신화』, 한국문화사, 2005.
- 김재환 편저, 『한국서사문학과 동물』, 보고사, 2005.
- 김정호, 『이야기문학과 여성연구』, 민속원, 2005.
- 김혜정, 『여성민요의 음악적 존재양상과 전승원리』, 민속원, 2005.
- 김화경, 『한국 신화의 원류』, 지식산업사, 2005.
- 나경수, 『한국의 신화』, 한얼미디어·한즈미디어, 2005.
- 박상란, 『신라와 가야의 건국신화』, 한국학술정보, 2005.
- 박승배 외, 『Simcheongga Heungboga』, 민속원, 2005.
- _____, 『Sugungga Jeokbyeokg』, 민속원, 2005.
- 배재홍 외,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탄광촌 사람들의 삶과 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05.
- Seo Daeseok and Peter H. Lee, 『Oral Literature of Korea』, Jimoondang, 2005.
- 서영대, 『시흥군자봉 성황제』, 시흥문화원, 2005.
- 서해숙, 『한국 성씨의 기원과 신화』, 민속원, 2005.
- 송효섭, 『탈신화 시대의 신화들』, 기파랑, 2005.
- 신선희, 『우리 고전 다시 쓰기 - 고전 서사의 현대적 계승과 장르적 변용』, 삼영사, 2005.
- 심치열 · 박정혜, 『신화의 세계』, 성신여대 출판부, 2005.
-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마을민속,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민속원, 2005.
- 연세대 국학연구원 편, 『연세국학연구사』, 연세대 출판부, 2005.
- 유승 외, 『Chunhyangga』, 민속원, 2005.
- 윤영옥 외, 『(현대어역본)수궁가 적벽가』, 민속원, 2005.
- _____, 『(현대어역본)심청가 흥보가』, 민속원, 2005.
- _____, 『(현대어역본)춘향가』, 민속원, 2005.
- 이동철, 『한국 용설화의 역사적 전개』, 민속원, 2005.
- 이보형 외, 『강원도 민요와 삶의 현장』, 집문당, 2005.
- 이석범, 『제주신화』, 황금알, 2005.
- 이성훈, 『해녀의 삶과 그 노래』, 민속원, 2005.
- 이진호, 『(여주지방의) 민요 연구』, 형설출판사, 2005.
- 이창현, 『신화와 전설 그리고 민담의 이해』, 명지대 출판부, 2005.
- 이현홍, 『동북아시아 한민족서사문학 연구』, 박이정, 2005.
- 임경화, 『근대 한국과 일본의 민요 창출』, 소명출판, 2005.
- 임재해 외, 『하회탈 그 한국인의 얼굴』, 민속원, 2005.
- 장미영 외, 『(현대화사설본)수궁가 적벽가』, 민속원, 2005.
- _____, 『(현대화사설본)심청가 흥보가』, 민속원, 2005.
- _____, 『(현대화사설본)춘향가』, 민속원, 2005.
- 조규익 외, 『제주도 해녀 노젓는 소리의 본토 전승양상에 관한 조사·연구』, 민속원, 2005.
- 조동일, 『한국의 탈춤』, 이화여대 출판부, 2005.
- 조현설 외, 『한국 서사문학과 불교적 시각』, 역락, 2005.
- 조희웅 외, 『영남 구전민요 자료집 1-3』, 월인, 2005.
- 처용간행위원회, 『처용연구집 3(민속)』, 역락, 2005.
- 최동현 · 최혜진, 『(교주본)수궁가』, 민속원, 2005.
- _____, 『(교주본)심청가』, 민속원, 2005.
- _____, 『(교주본)적벽가』, 민속원, 2005.
- _____, 『(교주본)춘향가 1-2』, 민속원, 2005.
- _____, 『(교주본)흥보가』, 민속원, 2005.
- 최동현, 『판소리의 미학과 역사』, 민속원, 2005.
- 최원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한국 신화 2』, 여름언덕, 2005.
- 최형근, 『서울의 무가 2』, 민속원, 2005.
- 한국여성향토문화연구원 편, 『한국 여성들, 무엇을 믿고 살았을까』, 집문당, 2005.

- 한소진, 『설화의 바다에서 퍼올린 한국드라마』, 한국학술정보, 2005.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홍태한, 『한국의 무가 3 : 서울 지역 필사본 무가』, 민속원, 2005.

2. 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

- 강경애, 「<梁山伯傳>의 설화적 모티프 연구」, 신라대 석사논문, 2005.
 강철규, 「『三國遺事』에 나타난 往生說話 研究」, 동국대 석사논문, 2005.
 강호정, 「설화 문학의 현대적 적용 양상 연구-〈지하국대적퇴치담〉과 온라인 게임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논문, 2005.
 고성민, 「투시형 범설화 연구」, 전북대 석사논문, 2005.
 고헌임, 「놀이제비노정기 비교연구」, 목원대 석사논문, 2005.
 고훈, 「설화의 띠 동물상징 연구 : 한국구비문학대계를 중심으로」, 연세대 국문과 석사논문, 2005.
 권호택, 「고구려 건국신화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5.
 기시모토 다카네, 「한·일 뱀 설화 비교연구 : 제주도와 오키나와 지역을 중심으로」, 한남대 석사논문, 2005.
 김달비, 「暗行御史 說話 研究」, 우석대 석사논문, 2005.
 김두산, 「金德齡 說話 研究 : 說話에 나타난 傳承樣相을 中心으로」, 호남대 국문과 석사논문, 2005.
 김미영, 「한국 미륵설화의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2005.
 김상란, 「한국의 제사·혼령 설화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05.
 김선아, 「『어우야담』의 서사적 특성 연구」, 전북대 석사논문, 2005.
 김성미, 「鬼神說話 研究」, 경성대 석사논문, 2005.
 김승헌, 「《鳳山탈춤》의 娛樂의 性格에 關한 研究」, 한양대 석사논문, 2005.
 김예선, 「『살아온 이야기』의 문학적 성격과 위상 연구」, 건국대 국문과 석사논문, 2005.
 김윤옥, 「고전 서사문학의 '꿈' 모티프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2005.
 김은근, 「탈춤에 나타난 陰陽五行思想 研究」, 중앙대 석사논문, 2005.
 김은미, 「韓國 義狗說話 研究」, 경성대 석사논문, 2005.
 김환성, 「〈희생호 설화〉 중 살아 행위 설화에 대한 아동의 윤리 인식 태도 연구」, 명지대 석사논문, 2005.
 노혜진, 「《高麗史》列傳 孝友篇의 孝友說話 研究」, 한양대 석사논문, 2005.

- 문봉순, 「심방의 입무 의례 연구 : <초공본풀이>와 신곡의 관계를 중심으로」, 경성대 석사논문, 2005.
 문운선, 「진주오광대 연구 : 통영·고성·가산 오광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부산대 석사논문, 2005.
 박성수, 「忠南地方의 風水說話 研究」, 공주대 석사논문, 2005.
 박수라, 「방학중설화 연구」, 경성대 석사논문, 2005.
 박은희, 「현대소설에 나타난 처용설화 수용 양상」, 한남대 석사논문, 2005.
 박정용, 「설화의 진래동화 개작 양상과 문제점 연구-〈해와 달이 된 오누이〉, <콩쥐팥쥐〉, <아기장수 설화〉를 중심으로」, 한남대 석사논문, 2005.
 박지영, 「동초제 적벽가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2005.
 박하정, 「탈춤에 내재된 유희적 성향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5.
 백성과, 「문화콘텐츠 시나리오 창작 유형에 관한 연구 :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논문, 2005.
 서은아, 「<나무꾼과 선녀>의 인물갈등 연구」, 서울여대 석사논문, 2005.
 서훈정, 「風水說話의 유형과 의식 세계」, 한남대 석사논문, 2005.
 소은정, 「호행설화의 유형과 의미」, 경남대 석사논문, 2005.
 손경선, 「『三國遺事』 所載 夢 說話 研究」, 중앙대 석사논문, 2005.
 송기태, 「완도 생일면 서성리 풍물굿의 현장론적 연구」, 목포대 석사논문, 2005.
 송진규, 「민요 가창자의 생애와 민요 사설의 상관성 연구」, 세명대 석사논문, 2005.
 신현주, 「아기장수 설화의 비극성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2005.
 岸本孝根, 「韓·日 뱀 說話 比較 研究」, 한남대 석사논문, 2005.
 안은혜, 「서사무가 『바리공주』와 새남굿의 구조적 상관관계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2005.
 유미정, 「한국과 프랑스의 민담 유형 비교 연구」, 경기대 석사논문, 2005.
 윤수경, 「도선설화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2005.
 이경덕, 「한국 샤머니즘의 신화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2005.
 이경희, 「사금갑 설화 연구」, 전북대 석사논문, 2005.
 이민성, 「판소리의 치유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5.
 이승희, 「하이퍼텍스트 노래문학의 민요성 연구」, 동아대 석사논문, 2005.
 이연주, 「『사랑가』의 판소리와 창극 특성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2005.
 이영우, 「단양민요의 지역성 연구」, 세명대 석사논문, 2005.
 이원희, 「도둑설화 연구」, 경성대 석사논문, 2005.
 이재순, 「숙종대왕설화 연구」, 경성대 석사논문, 2005.
 이지향, 「全北地域의 孝行說話 研究」, 우석대 석사논문, 2005.

- 이지희, 「아시아 지역 난생신화의 유형과 의미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5.
- 이현호, 「창조신화 형성배경과 역사적 의미」, 목원대 석사논문, 2005.
- 임승범, 「충남 내포 지역의 앳은곳 연구 : 태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남대 석사논문, 2005.
- 장민석, 「고창녕 설화 연구」, 동아대 석사논문, 2005.
- 장의용, 「한국 전남지역과 대만의 당신좌정담 비교 연구」, 한남대 석사논문, 2005.
- 전초룡, 「〈춘향전〉의 민요화 양상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2005.
- 정기원, 「서사구조로 본 삼국유사 : 공간을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 정연정, 「경남 의령군 전승민요 연구」, 부산외대 석사논문, 2005.
- 정영희, 「경기 민요 창부타령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2005.
- 정은주, 「관용어와 속담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원광대 석사논문, 2005.
- 정종환, 「산청지역 서사민요 연구」, 동아대 석사논문, 2005.
- 中村和代, 「전승집단과 연행상황에 따른 하회탈놀이의 지속과 변화」, 안동대 석사논문, 2005.
- 진원원, 「『청구야담』과 『삼언』의 여성인물 비교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5.
- 최은미, 「假面劇 臺詞 研究」, 충북대 석사논문, 2005.
- 최중윤, 「'서동설화'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5.
- 최지선, 「온달설화의 전승과 수용」, 성신여대 석사논문, 2005.
- 풍효, 「한·중 여성 속담의 비교를 통한 한국 문화 교육」, 부산대 석사논문, 2005.
- 한정훈, 「전남 용설화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2005.
- 허무영, 「부산 강서구 설화의 구조와 특성」, 동아대 석사논문, 2005.

<박사학위논문>

- 강지희, 「〈심청전〉의 형성과정과 현대적 변용 연구」, 조선대 박사논문, 2005.
- 구미래, 「'사십구재'의 의례체계와 의례주체들의 죽음 인식」, 안동대 박사논문, 2005.
- 김정경, 「고전문학의 지식체계 형성에 대한 담론적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2005.
- 김진순, 「한국민요의 정서적 기능과 문화콘텐츠」, 한림대 박사논문, 2005.
- 배연형, 「판소리 소리책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2005.
- 유명희, 「아라리연구」, 한림대 박사논문, 2005.
- 이진모, 「嶺東 地域 說話 研究」, 관동대 박사논문, 2005.
- 이현수, 「정선아라리의 전승현장과 변이양상 연구」, 대구대 박사논문, 2005.
- 장익선, 「延邊民謠의 音樂의 特性과 傳承樣相에 대한 研究」, 한양대 박사논문,

2005.

- 한정미, 「북한의 문예정책과 구비문학의 활용 양상 연구」, 숙명여대 박사논문, 2005.

3. 학술지논문

<구비문학일반>

- 강진욱, 고전 서사문학에 나타난 가족과 여성의 존재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2005.
- _____, 「구비문학과 삶, 인간 이해로 나아간 노정」,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엮음, 『국어국문학, 미래의 길을 묻다 - 향후 10년의 지형도』, 태학사, 2005.
- 김문태, 「北韓의 口碑文學 장르 인식과 관점 연구」, 『어문연구』 12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 나경수, 「구비문학의 변증법적 모색」,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엮음, 『국어국문학, 미래의 길을 묻다 - 향후 10년의 지형도』, 태학사, 2005.
- 서대석, 「공동체와 구비문학의 상관관계」, 『구비문학연구』 21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 임재해, 「20세기 민속학을 보는 현재학 논의의 비판적 인식」, 『남도민속연구』 11, 남속민속학회, 2005.

<설화>

- 강미정, 「〈감부가 된 석승〉에 나타난 자기서사의 변화」, 『문학치료연구』 3, 문학치료학회, 2005.
- _____, 「〈도화녀와 비형량〉에 대한 초등학교 3학년 도형이의 반응과 그 문학치료적 전망」, 『문학치료연구』 2, 문학치료학회, 2005.
- 강은혜, 「원효(元曉) 설화에 나타난 풍류정신-의상(義湘) 설화와 비교하면서」, 『동남어문논집』 19, 동남어문학회, 2005.
- 강진욱, 「동아시아 농경 및 곡물기원 신화와 문화영웅의 존재양상」, 『구비문학연구』 21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 _____, 「무속 여성신화와 농경적 생명원리 : <바리공주>와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0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 강현모, 「김덕령 전승에 나타난 서사장르 간의 관계」, 『비교민속학』 28, 비교민속학회, 2005.

- 곽정식, 「가짜열녀 이야기의 존재양상과 전승의식」, 『어문학』 88, 한국어문학회, 2005.
- 김경섭, 「이야기 전승에 나타난 텍스트화의 양상」, 『한국고전연구』 11,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 김승호, 「寺刹文獻에 나타난 創寺緣起說話의 사상적 기저」, 『어문연구』 47, 어문연구학회, 2005.
- 김영희, 「비극적 구전 서사의 연행에서 나타나는 비밀 폭로자로서의 여성 이미지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2005.
- 김윤애, 「한국 창조신화와 그리스 창조신화에 있어서 자연」, 『비교민속학』 30, 비교민속학회, 2005.
- 김중근, 「<도재상(盜宰相)>계 설화의 이상실현 의지와 개작의 연관성」, 『어문연구』 49, 어문연구학회, 2005.
- 김종대, 「도시에서 유행한 <빨간 마스크>의 변이와 속성에 대한 시론」, 『한국민속학』 41, 한국민속학회, 2005.
- _____, 「學校共同體에서 만들어진 이야기, 學校怪談」, 『구비문학연구』 20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 김준형, 「19세기 말-20세기 초 야담의 전개 양상」, 『구비문학연구』 21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 _____, 「가족의 의미망을 통해 본 야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2005.
- _____, 「근대전환기 폐설의 존재양상 - 1910~1920년대 폐설집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42, 한국문학학회, 2005.
- 김혜정, 「야담에 나타난 여성의 우정 실현의 두 양상」, 『돈암어문학』 18, 돈암어문학회, 2005.
- 나경수, 「무등산 전설의 연구」, 『한국민속학』 41, 한국민속학회, 2005.
- 노성환, 「韓日 日月起源神話의 比較研究」, 『비교민속학』 30, 비교민속학회, 2005.
- 노영근, 「<동물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 민담 연구」, 『시학과언어학』 10, 시학과언어학회, 2005.
- 류정월, 「『재총화(齋叢話)』에 나타난 육망관에 관한 고찰」, 『한국고전연구』 11,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 _____, 「문헌 소화의 의미 작용에 관한 일고찰 : 이야기부와 논평부의 상호 작용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0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 류종목 외, 「부산과 대마도 설화의 전승양상과 유형별 비교」, 『한국민속학』 41, 한국민속학회, 2005.
- 박대복, 「脫解神話의 文學史的 意味」, 『우리문학연구』 18, 우리문학회, 2005.
- _____, 「脫解神話의 治國英雄의 性格 연구」, 『어문연구』 126, 한국어문교육연구

- 회, 2005.
- 박성지, 「불교적 感應의 담론 형성에 관하여 - 힘의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1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 박종성, 「왜 지금 고구려 신화인가」, 『인문과학연구』 9, 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 서은아, 「<나무꾼과 선녀>의 부부갈등 중 '선녀의 개인적 결점'으로 인한 갈등과 그 문학치료적 가능성 탐색」, 『문학치료연구』 2, 문학치료학회, 2005.
- 소문숙, 「며느리설화의 여성주의적 양상」, 『동남어문논집』 19, 동남어문학회, 2005.
- 송효섭, 「신화의 탈개념화와 담론 생산의 가능성」,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엮음, 『국어국문학, 미래의 길을 묻다 - 향후 10년의 지형도』, 태학사, 2005.
- 신동훈, 「인터넷, 이야기, 그리고 생활정치 - 네티즌의 정치참여에 대한 문학적 고찰」, 『민족문학사연구』 27, 민족문학사학회, 2005.
- 신태수, 「<나무꾼과 선녀> 설화의 신화적 성격」, 『어문학』 89, 한국어문학회, 2005.
- 심민호, 「<명당을 훔친 딸> 설화의 형성 배경에 관한 연구 -17세기 조선에서 행해진 나쁜 딸 만들기 프로젝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1,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5.
- _____, 「지명유래담에 나타난 풍수지리적 사고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유래담을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17, 국립민속박물관, 2005.
- 심치열, 「삼국유사 소재 설화의 서사적 계승 연구」, 『국어국문학』 139, 국어국문학회, 2005.
- 안창수, 「설씨녀 설화와 영사악부 「과경합」의 서사구조 분석」, 『한민족어문학』 47, 한민족어문학회, 2005.
- 오세정, 「<대홍수와 목도령>에 나타나는 창조신의 성격」,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 윤분희, 「'황진이 이야기'의 의미 생성과 변모」, 『우리말글』 34, 우리말글학회, 2005.
- 윤여영, 「조선 후기 문헌 설화의 여성 전형 연구 -여성 섹슈얼리티의 사회적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 윤혜신, 「불상출현담(佛像出現譚)의 서사문학적 위치와 의미 : 『삼국유사』 <황룡사 장류>, <사불산 굴불산 만불산>, <무왕>조 설화를 대상으로」, 『구비문학연구』 20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 이강옥, 「19세기 말 야담의 새로움」, 『국어국문학』 140, 국어국문학회, 2005.
- 이동근, 「경산지역 설화의 분류와 특징」, 『우리말글』 33, 우리말글학회, 2005.
- 이동철, 「과천계줄다리기의 전설과 놀이의 전승 양상」, 『비교민속학』 30, 비교민속

- 학회, 2005.
- _____, 「용궁설화의 서사구조와 의미」, 『비교민속학』 28, 비교민속학회, 2005.
- 이선웅, 「TV 코미디 프로그램의 유머 분석」, 『어문학』 89, 한국어문학회, 2005.
- 이신성, 韓·中 <孝子里>와 <義虎亭>설화의 比較研究, 『동남어문논집』 19, 동남어문학회, 2005.
- 이영수, 「<온달설화>의 구비전승 양상, 김용성 외, 『한국문학연구의 현단계』, 역락, 2005.
- 이정숙, 「신화와 일제 식민주의 교육」, 『비교민속학』 30, 비교민속학회, 2005.
- 이지영, 「동아시아 건국시조신화의 비교연구」, 『동아시아고대학』 12, 동아시아고대학회, 2005.
- _____, 「무속신화에 나타난 救藥모티프의 서사화 양상과 그 의미」, 『구비문학연구』 21집, 한국구비문학회, 2005.
- _____, 「설화에 나타난 가족관계와 갈등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2005.
- 이창식, 「서불설화의 동아시아적 성격」, 『어문학』 88, 한국어문학회, 2005.
- _____, 「서불전승의 정체성과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동아시아고대학』 12, 동아시아고대학회, 2005.
- 이창재, 「한중일 영웅신화의 공통성과 차이성에 대한 정신분석적 비교」, 『비교민속학』 30, 비교민속학회, 2005.
- 이현홍, 「<황금은 흑사심>의 창작설화적 성격」, 『동남어문논집』 19, 동남어문학회, 2005.
- 임재해, 공민왕 몽진 설화에 나타난 주민들의 역사의식」, 『구비문학연구』 21집, 한국구비문학회, 2005.
- _____, 「마을 설화의 전승양상과 공동체문화의 함수」, 『구비문학연구』 20집, 한국구비문학회, 2005.
- _____, 「산신설화의 전승양상과 산신숭배의 문화」, 『비교민속학』 29, 비교민속학회, 2005.
- 장정해, 「주변민족의 시조신화에 대한 고대중국인의 인식」, 『동아시아고대학』 11, 동아시아고대학회, 2005.
- 진기웅, 眞聖女王代의 花郎 孝宗과 孝女知恩 說話, 『韓國民族文化』 25,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5.
- 정재민, 「韓·中 天生緣分說話의 비교 연구」, 『구비문학연구』 20집, 한국구비문학회, 2005.
- 조희웅, 「일본어로 쓰여진 한국설화, 한국설화론 (1)」, 『어문학논총』 24,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2005.
- 최래옥, 「들노적 설화의 연구」, 『비교민속학』 30, 비교민속학회, 2005.

- 최선경, 『삼국유사』 불교 설화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의 형상과 기능에 관하여」, 『인간연구』 8, 가톨릭대 인간학연구소, 2005.
- 최운식, 「「며느리감 고르기 설화」에 나타난 부자 며느리의 조건과 경제의식」, 『한국민속학』 41, 한국민속학회, 2005.
- 최원오, 「무속신화, 그 속에 반영된, 가족의 일상적 삶과 의미」, 『국문학연구』 13, 2005.
- 표인주, 「인물전설의 전승양상과 축제적 활용」, 『한국민속학』 41, 한국민속학회, 2005.
- 하은하, 「원수가 자식이 된 이야기의 이분양상과 문학치료적 의미」, 『문학치료연구』 3, 문학치료학회, 2005.
- _____, 「『삼국유사』 소재 설화를 이용한 문학치료의 한 사례」, 『문학치료연구』 2, 문학치료학회, 2005.
- 허남춘, 「일본신화와 신어가를 통해 본 한일 고대 시가」, 『비교민속학』 28, 비교민속학회, 2005.
- 황인덕, 「'두더지 혼인' 설화의 印·中·韓 비교고찰」, 『어문연구』 48, 어문연구학회, 2005.
- _____, 「<범보다 무서운 곳감> 설화의 비교적 고찰」, 『한국민속학』 42, 한국민속학회, 2005.
- _____, 「1900년대 전반기 방랑이야기꾼과 이야기문화」, 『구비문학연구』 21집, 한국구비문학회, 2005.

<무가>

- 김현선, 「<조복잇당신본풀이>의 전승 유형 연구」, 『구비문학연구』 21집, 한국구비문학회, 2005.
- _____, 「<칠성본풀이>의 본풀이적 의의와 신화적 의미 연구」, 『고전문학연구』 28, 한국고전문학회, 2005.
- _____, 「<베포도엮침 · 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나 신화의 논리」, 『비교민속학』 28, 비교민속학회, 2005.
- 박경신, 「별신굿과 공동체문화 :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지역 연구를 통해서」, 『구비문학연구』 20집, 한국구비문학회, 2005.
- 박종성, 「한국의 본풀이와 구비영웅서사시 비교론, 그 두 측면 - <게사르(格薩爾)>, <므윈도(Mwindo)>, <문국성본풀이>, <가문장(가본풀이)>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42, 한국문학회, 2005.
- 신동훈, 「치유의 서사로서의 무속신화 - 그 문학치료적 힘에 대한 단상」, 『문학치

- 료연구』2, 문학치료학회, 2005.
- 신연우, 「서울굿 노랫가락의 구성과 의미」, 『고전문학연구』 28, 한국고전문학회, 2005.
- _____, 「서울굿 무가 노랫가락의 양상과 기능」, 『구비문학연구』 21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 안상경, 「축사경의 교술적 성격 검토」, 『우리말글』 34, 우리말글학회, 2005.
- 오세정, 「〈창세가〉의 원형적 상상력의 구조와 의미체계」, 『구비문학연구』 20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 이경엽, 「씻김굿 무가의 연행 방식과 그 특징」, 『비교민속학』 29, 비교민속학회, 2005.
- 이희주, 「서사무가 편입가요의 기능과 의의」, 『동남어문논집』 19, 동남어문학회, 2005.
- 홍태한, 「서울굿 가망청배거리에서 '가망'의 의미 연구」, 『한국민속학』 41, 한국민속학회, 2005.
- <민요>
- 강연임, 「〈시집살이요〉의 텍스트성 연구」, 『어문연구』 48, 어문연구학회, 2005.
- 강혜인, 「전래동요 '놀리는 노래'의 음악 분석 연구」, 『한국민요학』 17, 한국민요학회, 2005.
- 권오경, 「경북·충북 道界地域 민요의 특성과 공동체 문화」, 『구비문학연구』 20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 _____, 「동해안 지역 어로요의 존재양상과 특성」, 『한국민요학』 17, 한국민요학회, 2005.
- 김보희, 「고려인 전래민요의 전승과 변천」, 『한국민요학』 16, 한국민요학회, 2005.
- 김영민, 「韓國婦謠에 나타난 여성들의 情恨」, 『한국언어문학』 55, 한국언어문학회, 2005.
- 김영운, 「唐音의 音樂樣式과 장르 歸屬 問題」, 『한국민요학』 16, 한국민요학회, 2005.
- 김인숙, 「서해안 노젓는소리의 가창방식과 악곡구조 연구」, 『한국민요학』 17, 한국민요학회, 2005.
- 김혜정, 「초등 국악교육을 위한 유희요의 음적 특성과 분포 연구」, 『한국민요학』 17, 한국민요학회, 2005.
- 나승만, 「근대 민요공동체에 대한 사적 고찰」, 『구비문학연구』 21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 명현, 「자장가의 지역적 분포에 따른 음악적 특징 연구」, 『한국민요학』 16, 한국민요학회, 2005.
- 문숙희, 「서부경남에 전승된 제주도 <해녀 노 젓는 소리>의 음악적 고찰」, 『한국민요학』 16, 한국민요학회, 2005.
- 박애경, 「19세기 말, 20세기 초 잡가의 소통 환경과 존재양상」, 『구비문학연구』 21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 서영숙, 「가족의 변경에 서서 부르는 노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2005.
- _____, 「서사민요와 서사무가의 구조적 특성 비교」, 김용성 외, 『한국문학연구의 현단계』, 역락, 2005.
- 손인애, 「서도민요 사설난봉가 연구」, 『한국민요학』 16, 한국민요학회, 2005.
- _____, 「토속민요 배꽃타령계통 소리 연구」, 『한국민요학』 17, 한국민요학회, 2005.
- 유명희, 「강원 지역 아라리의 분포 양상과 권역별 특징」, 『한국민요학』 16, 한국민요학회, 2005.
- 이성훈, 「〈해녀 노 젓는 소리〉 사설의 오기 및 어석의 오류」, 『한국민요학』 16, 한국민요학회, 2005.
- 이운선, 「닷배노래의 교섭양상과 공연화에 나타난 변화 고찰」, 『한국민요학』 16, 한국민요학회, 2005.
- 이재영, 「서사민요의 텍스트 구성과 문화적 기억 -〈시집살이 노래〉를 대상으로」,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 이정아, 「시집살이 노래에 관한 일고」, 『한국고전연구』 11,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 이창식, 「성(性) 소재 구비시가의 유희성과 생산성」, 『우리말글』 33, 우리말글학회, 2005.
- _____, 「인제지역 뗏목민요의 원형과 활용」, 『한국민요학』 17, 한국민요학회, 2005.
- 이현수, 「정선아라리의 변이양상」, 『한국민요학』 16, 한국민요학회, 2005.
- 이형대, 「일제시기 대중가요와 식민지 여성 현실」,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2005.
- 장유정, 「1930년대 서울 노래의 이중성 : 웃음과 눈물의 이중주」, 『서울학연구』 24,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2005.
- _____, 「20세기 전반기 기생 소재 대중가요의 노랫말 분석」, 『한국문화』 35,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05.
- _____, 「20세기 전반기 한국 가요와 문화콘텐츠」, 『한국민요학』 17, 한국민요학회, 2005.

_____, 「안서 김억의 대중가요 가사에 나타나는 민요적 특성 고찰」, 『겨레어문학』 35, 겨레어문학회, 2005.

_____, 「현대 트로트의 특성 고찰 : 2004년 하반기 인기곡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0집, 한국구비문학회, 2005.

정은경, 「민요와 전래동요를 중심으로 한 아동들의 국악 감상수업 설계」, 『한국민요학』 17, 한국민요학회, 2005.

최은숙, 「20세기 초 <수심가>의 흥행 양상과 요인」, 『어문학』 90, 한국어문학회, 2005.

최자운, 「경기지역 고사소리 연구」, 『한국민요학』 16, 한국민요학회, 2005.

최정선, 「민요의 불교적 수용으로서의 <풍요> 연구」, 『한국민요학』 16, 한국민요학회, 2005.

최현 외, 「부산 · 경남 지방 전통민요 조사 연구」, 『한국민요학』 17, 한국민요학회, 2005.

홍순일, 「<도서지역 민요>와 문화관광」, 『한국민요학』 17, 한국민요학회, 2005.

<민속극>

김영경, 「한국춤의 동작원리와 미적 특질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 『비교민속학』 28, 비교민속학회, 2005.

박진태, 「<항장무>의 연극적 · 희곡적 측면」, 『우리말글』 33, 우리말글학회, 2005.

_____, 「문학과 탈놀이에 나타난 소외의 극복 방식과 소외인의 형상」, 『비교민속학』 30, 비교민속학회, 2005.

_____, 「신라시대 산신가무의 연극적 · 역사적 의미」, 『고전문학연구』 28, 한국고전문학회, 2005.

박진태, 「춘향놀이의 연희적 특징과 여성문화적 성격」, 『비교민속학』 28, 비교민속학회, 2005.

배도식, 「부산 지역 탈놀음의 비교 고찰」, 『동남어문논집』 19, 동남어문학회, 2005.

이애주, 「춤과 과학」, 『비교민속학』 28, 비교민속학회, 2005.

이정복, 「영남 지역 탈춤 대사의 사회언어학적 분석」, 『어문학』 88, 한국어문학회, 2005.

임재해, 「꼭두각시놀음 연희본들의 변이양상과 전승양상」, 『한국민속학』 41, 한국민속학회, 2005.

정형호, 「양주별산대놀이의 전승집단과 지역공동체 문화와의 관련성」, 『구비문학연구』 21집, 한국구비문학회, 2005.

조정현, 「하회탈춤 전통의 재창조와 안동문화의 이미지 변화」, 『비교민속학』 29,

비교민속학회, 2005.

허용호, 「토박이 광대패 인형극의 전승 양상 : 서산시 음암면 탑곡 마을의 서산박 침지놀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0집, 한국구비문학회, 2005.

<판소리>

강윤정, 「朴東鎭 唱本 <숙영낭자전> 연구」, 『구비문학연구』 20집, 한국구비문학회, 2005.

고양숙, 「춘향전의 현대적 수용과 문학교육」, 김용성 외, 『한국문학연구의 현단계』, 역락, 2005.

권오경, 「<고고천변(皐皐天邊)>의 존재양상과 기능 고찰」, 『어문학』 87, 한국어문학회, 2005.

김광옥, 「<수궁가>의 재창조를 위한 수행적 연구」, 『판소리연구』 20집, 판소리학회, 2005.

김기형, 「남원지역과 판소리문화」, 『구비문학연구』 20집, 한국구비문학회, 2005.

김나영, 「장르별 심청이야기가 지니는 의미 지향」, 『판소리연구』 19집, 판소리학회, 2005.

김동건, 「토끼전의 인물형상과 개방성」, 『판소리연구』 20집, 판소리학회, 2005.

김석배, 「판소리 명창 김창준의 예술활동」, 『판소리연구』 20집, 판소리학회, 2005.

김익두, 「동리 신재효의 광대가와 한국 공연이론」, 『판소리연구』 20집, 판소리학회, 2005.

김정녀, 「신자료 한문본 <토공전>의 성립 시기와 이본적 특성」, 『판소리연구』 20집, 판소리학회, 2005.

김종균, 「<열녀춘향수절가>의 구연적 과장 표현 양상과 그 의미」, 『판소리연구』 19집, 판소리학회, 2005.

김종철, 「19-20세기 전반기 공동체의 변화와 판소리」, 『구비문학연구』 21집, 한국구비문학회, 2005.

김현주, 「<춘향가> 문체의 환유적 성격」, 『판소리연구』 19집, 판소리학회, 2005.

_____, 「판소리연구의 과제와 전망」,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엮음, 『국어국문학, 미래의 길을 묻다 - 향후 10년의 지형도』, 태학사, 2005.

김혜정, 「김연수와 임방울의 선택과 지향 - 수궁가를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20집, 판소리학회, 2005.

민병욱, 「민족가극 <춘향전> 연구」, 『한국문학논총』 41, 한국문학회, 2005.

배연형, 「『춘향가 말쑥』 (이용우 필사본)과 해제」, 『한국어문학연구』 44,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5.

- 사진실, 「근대극의 성립과 해체 과정에 나타난 공동체 문화의 위상」, 『구비문학연구』 21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 서인화, 「장월중선(張月中仙) 명창론」, 『판소리연구』 19집, 판소리학회, 2005.
- 서종문, 「신재효의 판소리사적 위상」, 『판소리연구』 20집, 판소리학회, 2005.
- 성기련, 「고창과 여성명창」, 『판소리연구』 20집, 판소리학회, 2005.
- 신동훈, 「판소리문학의 결말부에 담긴 현실의식 재론 : <심청전>과 <홍부전>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19, 판소리학회, 2005.
- 신은주, 「김소희제 춘향가 연구」, 『판소리연구』 19집, 판소리학회, 2005.
- 오대혁, 「『관음사연기설화』와 형성기 『심청전』의 불교사상」, 『한국어문학연구』 44,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5.
- 이진원, 「판소리 <춘향가>의 현대적 재창조에 관한 연구」, 『판소리연구』 19, 판소리학회, 2005.
- 장미영, 「판소리 사설의 디지털서사화 방안」, 『판소리연구』 20집, 판소리학회, 2005.
- 장휘주, 「박동실제 <심청가>의 구조(격(格))와 정취(情趣)(취(趣))」, 『판소리연구』 19집, 판소리학회, 2005.
- 정병헌, 「고창의 판소리 문화적 기반」, 『판소리연구』 20집, 판소리학회, 2005.
- 정충권, 「<토끼전> 신변 대결의 양상과 의미」, 『판소리연구』 20집, 판소리학회, 2005.
- _____, 「<홍부전>과 <바리공주>의 문학치료학적 독해-비교의 관점에서-」, 『문학치료연구』 3, 문학치료학회, 2005.
- 최승연, 「서울예술단의 뮤지컬 <심청> 연구」, 『판소리연구』 19집, 판소리학회, 2005.
- 최영희, 「한국현대 희곡에 나타난 춘향전 변용 양상연구」, 『판소리연구』 20집, 판소리학회, 2005.
- 최진형, 「<심청전>의 전승 양상 - 출판 문화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19집, 판소리학회, 2005.
- 최형호, 「생명의 관점에서 「심청전」의 ‘바다’ 다시 읽기」, 『문학과환경』 4, 문학과환경학회, 2005.
- 최혜진, 「정웅민 바다 <심청가>의 성립과 전승 실태 연구」, 『판소리연구』 20집, 판소리학회, 2005.
- 홍순일, 「<홍보가>에 나타난 극적 갈등의 변이와 의미」, 『어문연구』 48, 어문연구학회, 2005.

<기타 민속>

- 김미연, 「안좌도의 상제」, 『비교민속학』 30, 비교민속학회, 2005.
- 김상현, 「구(舊) 유고슬라비아 지역의 상장의례(喪葬儀禮)와 종교적 특성」, 『비교민속학』 30, 비교민속학회, 2005.
- 김수중, 「호남 연희의 전승 양상 연구」, 『한국언어문학』 54, 한국언어학회, 2005.
- 김시덕, 「현대 도시공간의 상장례 문화」, 『한국민속학』 41, 한국민속학회, 2005.
- 김영자, 「산신도(山神圖)에 표현된 산신(山神)의 유형」, 『한국민속학』 41, 한국민속학회, 2005.
- 김용국, 「화성축성시 고유제 연구」, 『비교민속학』 28, 비교민속학회, 2005.
- 김월덕, 「호남지역 마을굿의 분포 양상과 지역적 특징」, 『한국민속학』 42, 한국민속학회, 2005.
- 김현선, 「한국의 굿과 떡의 상관성 연구」, 『비교민속학』 30, 비교민속학회, 2005.
- 김현철, 「20세기 초기 무속조사의 의의와 한계 연구」, 『한국민속학』 42, 한국민속학회, 2005.
- 로저 L. 자벨리 · 임돈희, 「무형문화재의 전승실태와 개선방안」, 『비교민속학』 28, 비교민속학회, 2005.
- 박성석 · 조구호, 「한·중 무속의례 비교연구」, 『비교민속학』 30, 비교민속학회, 2005.
- 박진태, 「디딜방아액막이굿의 주술성과 오락화 현상」, 『비교민속학』 30, 비교민속학회, 2005.
- 박환영, 「영국의 도시민속학 경향에 대한 연구」, 『한국민속학』 41, 한국민속학회, 2005.
- 윤광봉, 「카구라와 공동체문화 : 중국지방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0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 이대중, 「충협의 역사적 전개와 연희양상」, 『비교민속학』 28, 비교민속학회, 2005.
- 이상현, 「나치시대 독일 영상민속지의 특징과 문제점」, 『한국민속학』 42, 한국민속학회, 2005.
- _____, 「전후 독일 영상민속지의 특징과 문제점」, 『비교민속학』 30, 비교민속학회, 2005.
- 이용범, 「근대화 과정에서의 무속과 공동체문화」, 『구비문학연구』 21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 _____, 「민속신앙과 과학」, 『비교민속학』 28, 비교민속학회, 2005.
- 이정재, 「독일의 도시민속학 연구 경향」, 『한국민속학』 41, 한국민속학회, 2005.
- 이창언, 「동해안지역 반촌 동제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 『비교민속학』 30, 비교민속학회, 2005.

- 이호성, 「줄광대 김대균의 연희 세계」, 『한국민속학』 42, 한국민속학회, 2005.
- 정인숙 외, 「호남 연희의 문화적 특성과 활용 방안」, 『돈암어문학』 18, 돈암어문학회, 2005.
- 정일, 「Naxi족의 사후세계에 대한 고찰」, 『동아시아고대학』 12, 동아시아고대학회, 2005.
- 정형호, 「20C 용산 지역의 도시화 과정 속에서 동제당의 전승과 변모 양상」, 『한국민속학』 41, 한국민속학회, 2005.
- _____, 「고구려 놀이문화의 유형과 특징」, 『동아시아고대학』 11, 동아시아고대학회, 2005.
- 한양명, 「19세기 중엽, 義城縣의 줄당기기를 통해 본 고을축제의 성격과 문화적 의미」, 『한국민속학』 42, 한국민속학회, 2005.
- _____, 「요사코이소란마츠리를 통해 본 지역축제의 성공요인」, 『비교민속학』 28, 비교민속학회, 2005.
- 허용호, 「전자문화지도 연구에서 민속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활용」, 『비교민속학』 30, 비교민속학회, 2005.
- 황경숙, 「영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자동차고사와 속신」, 『한국민속학』 42, 한국민속학회, 2005.